2022년 11월 6일
구역말씀나눔(22-23)

주일예배 구역모임

- 본문 : 에베소서 2장 1~7절
- 제목 :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인생”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본문 읽기

1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 마음의 문을 열며

간혹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기도제목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느끼고, 나아가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룩한 삶의 순환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깨닫게 되고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늘에 속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인생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영적 생활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1. 우리는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감격을 통해 아침마다 감사로 시작을 하고, 기도할 때 영혼의 기도가 열리고, 찬양의 입술이 열리는 자연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는가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던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말씀의 씨를 뿌리며

2. 바울 사도는 우리의 처지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는 3가지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엡:2:1~3) 이를 통해 우리 삶에 어떤 현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3. 영적으로 죽은 자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아주셨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구체적인 은혜를 무엇입니까? (엡2:4~6)

4.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 함께 일으키신 것,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엡2:7 ; 롬5:17b)

· 삶의 열매를 거두며

5.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본질에 어울리지 않는 왕 노릇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때, 왕이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왕의 삶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과 ‘기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인생"임을 확신하고 주님과 같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 노릇하게 하실 때, 지금 내가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결단을 나누어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